

느슨하고 안전한, 난잡한 돌봄

- 백수린·김멜라 소설을 중심으로 -

윤민희 || 서울대학교

문제의식

■ 동시대의 두 작가 백수린과 김멜라

- 소설을 통하여 돌봄 실천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
- 친족관계 안팎에서 상호 돌봄관계를 맺는 다양한 여성 인물.
- 여성 인물들이 상호 돌봄관계를 맺도록 추동하는 요인은 그들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돌봄이 부재하는 현실.
- 소설 속 인물이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 있음.

■ 두 작가의 소설세계와 '난잡한 돌봄' 모델

- '돌봄'을 타인에게 육체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는 부족함.
- '돌봄'이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역량이자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
- 돌봄을 보편화하는 전략인 '난잡한promiscuous 돌봄' 모델의 관점에서 백수린과 김멜라의 소설을 재독한다면 돌봄의 관계적 특징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하게 됨.

우리는 난잡하게 돌봐야 한다.
난잡한 돌봄은 가볍거나 진정성 없는
돌봄을 의미하지 않는다.
난잡함이란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하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선언』, 81~82쪽

돌봄관계에 속한 당사자들 간의 거리가
더 먼 경우라면, 타인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하기 및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같은 속성으로
돌봄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돌봄 또한 노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돌봄: 돌봄윤리』, 45쪽

관계 중심으로 가시화하는 여성의 삶

■ 2023년 5월, 백수린과 김멜라의 첫 장편소설 출간

- 「거짓말 연습」(2011)으로 등단한 백수린과, 「홍이」(2014)로 등단한 김멜라.
- 두 작가의 첫 장편소설에 각각 등장하는 소외된 여성 인물들은 돌보는 국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상호 돌봄관계를 맺음.

■ 모녀로부터 이모(들)로 확장되는 인물 관계도 — 백수린

- 「폭설」(2017): 처음으로 모녀관계 서사화.
- 『친애하고, 친애하는』(2019)(중편소설): 중첩된 모녀관계로 변주.
- 『눈부신 안부』(2023): 여성 인물들의 관계가 직계 가족 여성 구성원뿐 아니라 이모 및 이모 친구들로 확장.

■ 규범화된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난 인물을 소설 한가운데로 — 김멜라

- 「에콜」(2020):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 '나'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옆집 여자'의 이야기.
- 『없는 층의 하이센스』(2023): 할머니-엄마-딸로 이어지는 3대 모계가족의 이야기.
인물 관계도가 다소 확장되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할머니 '사귀자'와 손녀 '아세로라'의 동거관계에 놓여 있음.
- 이야기 전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한 밀도 높은 인물 관계도.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여성 인물(들) - '감추기'와 '드러내기'

■ '난잡한 돌봄' 모델의 문학적 형상화 방안 제시

- 친족관계 내에서 돌봄관계를 맺는 경우, 가족 중심 돌봄관계의 전형에서 벗어난다는 공통점.
- 친족관계 바깥에서 돌봄관계를 맺는 경우, 인물 간 돌봄관계 형성의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주목을 요함.

■ 감추기: 상호 간 정서적 거리감 확보 — 백수린

- 백수린 소설에 자주 사용되는 인물 간 거리 확보 장치는 '거짓말'이며 이는 '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작가의 언어 감각과 결부되는 특징.
- 거짓말에 능숙한 화자는 등단작 「거짓말 연습」에서부터 나타나며 『친애하고, 친애하는』을 거쳐 『눈부신 안부』에서 다시 등장.
- '거짓말'로 인해 자기 돌봄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인물 간 관계 맺기가 이루어짐.

■ 드러내기: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 맺음 — 김멜라

- 주변화된 여성 인물을 소설 한가운데로 초대하되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동반하도록 함.
- 김멜라 소설세계에서 여성(인물)은 자신의 감정 및 필요를 가감 없이 드러냄.
즉, 돌봄을 주는 사람이자 동시에 받는 사람으로 존재.
- 「모여 있는 녹색 점」(2015), 「링고링」(2020), 「저녁놀」(2021), 『없는 층의 하이센스』(2023) 등.